www.neuro.or.kr

# 대한신경과학회보

Newsletter of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05
May
2008

2008_5 • Vol. **77**

취임사 · 이임사

JCN의 SCI-E 등재

춘계 평의원회 소식

각 위원회별 활동

지부 동정

대한신경과학회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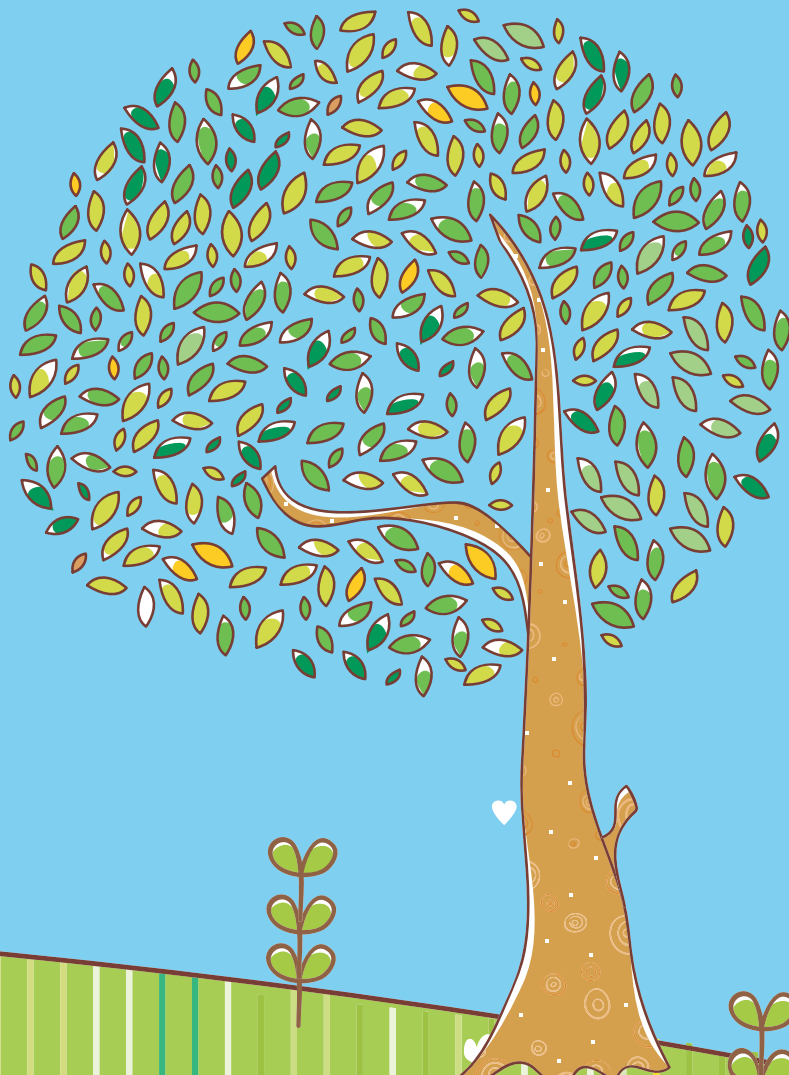
Newsletter of

#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 2008

### + 대한신경과학회 임원명단

| | |
|---|---|
| **회 장** | 이광호(성균관의대) |
| **부회장** | 하정상(영남의대) |
| **부회장** | 이창훈(이창훈신경내과의원) |
| **이사장** | 이광우(서울의대) |
| **부이사장** | 김주한(한양의대) |
| **총무이사** | 박성호(서울의대) |
| **보험이사** | 김영인(가톨릭의대) |
| **재무이사** | 김지수(서울의대) |
| **편집이사** | 허지회(연세의대) |
| **홍보이사** | 박수철(연세의대) |
| **고시이사** | 윤병우(서울의대) |
| **학술이사** | 김승현(한양의대) |
| **기획이사** | 전범석(서울의대) |
| **수련이사** | 박기덕(이화의대) |
| **정보이사** | 성기범(순천향의대) |
| **법제이사** | 박건우(고려의대) |
| **국제이사** | 한설희(건국의대) |
| **무임소이사** | 김재우(동아의대) |
| **무임소이사** | 조기현(전남의대) |
| **무임소이사** | 김재문(충남의대) |
| **무임소이사** | 안재훈(신구의원) |
| **감 사** | 정대수(부산의대) |
| **감 사** | 권오상(중앙의대) |
| **용어위원장** | 이상암(울산의대) |
| **노인의료위원장** | 서정규(경북의대) |
| **간 사** | 조진환(서울의대) |



# 대한신경과학회보

NO.77 2008.MAY

13 평의원회 모습

## Contents


**취임사 · 이임사**

**이사장을 맡으며** 이 광 우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04

**이사장을 마치며** 이 병 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05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JCN) 의 SCI-E 등재 소식을 접하며** 06

김 종 성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춘계 평의원회 소식** 10

**각 위원회별 활동**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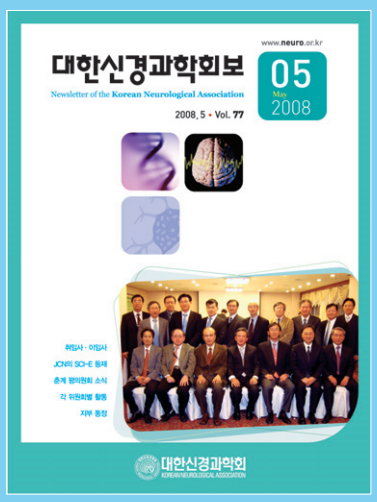
**지부 동정** 17

**알림란** 19

**회원 동정** 20



**발행인** | 이 광 우
**편집인** | 박 성 호
**발행처** | 대한신경과학회
**주 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1층 11호
**전 화** | (02)737-6530 **팩 스** | (02)737-6531 **이메일** | kna@neuro.or.kr **홈페이지** | www.neuro.or.kr
**디자인 · 인쇄** | 도서출판 씨아이알(02)2275-8603
**발행일** | 2008. 5. 31


cover story :
2008년도 신임 임원진

# 이사장을 맡으며

존경하는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대한신경과학회 업무를 시작한 이후 학회회보를 통하여 처음으로 회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1982년 창립된 후 역대 회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께서 노력하신 덕택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습니다. 오늘날 대한신경과학회는 학술적인 면이나 진료, 연구 면에서 국내 국외의 다른 학술단체와 비교하여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 의학의 중심에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002년에 창립 20주년에 맞추어 20년사를 발간하였고, 2007년에는 학회가 주관하여 임상신경학 교과서를 발간하였습니다. 특히 금년 3월에는 대한신경과학회 영문학회지인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가 창간 3년 만에 국내 의학회 학술지 중 7번째로 국제학술지 반열(SCIE)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빛나는 업적을 이끄신 역대 회장님, 이사장님, 그리고 회원 여러분들의 노고와 전통을 계승하며 앞으로도 이들 업적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5일 개최된 대한신경과학회 평의원회에서는 현 집행부가 기획하고 있는 몇 가지 업무를 원만히 추진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학회정관 개정(안)과 자학회(연구회)규정(안)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신경과학회를 중심으로 개원의협의회와 자학회 등 모두가 힘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 대한신경과학회는 회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개원의협의회 및 인접 자학회와 학술적-정책적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적 위상을 증진시키기 위한 역량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학회 차원에서 신경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새로이 창출하고 진료 항목을 개발하는 사업은 우리 회원들 모두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신경과 의사의 진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인접 진료과에서 불충분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는 이 환자들에게 신경과를 홍보하고, 인접 진료과 의사들에게 적절한 신경과 진료에 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진료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대한신경과학회를 중심으로 개원의협의회, 자학회, 인접학회 등이 역량을 결집하여야 합니다. 전체 회원이 모두 참가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학술대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으며, 진료수가 향상을 위한 정책적 결정 등에도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본 학회와 자학회는 바늘과 실의 관계로서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며 회원 전체의 권익을 위하여 왜곡된 진료 여건이 있으면 바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신경과학회는 활발한 국제 교류를 통하여 국제적 역량을 증진시켜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신경학에 관한 의학정보가 폭주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쉽게 국내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가 주도하여 지난 해에는 한국-일본 신경과학회 간에 학술 교류를 위한 첫 발검을 을 내딛었고, 금년에는 작지만 구체적인 교류가 본격화 되도록 시도하고 있으며, 앞으로 점차 교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근 신경과 분야의 의료환경은 다른 인접학회 분야와 마찬가지로 매우 빠르게 유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실을 기하면서 우리의 고유 영역을 더욱 더 공고히 하지 않는다면 급기야 우리는 우리의 설 자리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저를 포함한 임원진들은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회원들의 중지를 모으고 그에 따른 필요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항상 여러 회원들의 진솔한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 학회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셔서, 우리 학회가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안내하여 주시고, 그리고 채찍을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이 광 우

# 이사장을 마치며

약간의 미진함을 간직하면서도 홀가분한 어깨와 안도하는 기분으로 항상 존경하고 또 신뢰하는 이광우 신임 이사장께 우리 학회의 사무를 인계하던 지난 2월의 마지막 이사회는 지난 26년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온 대한신경과학회의 또 다른 새로운 도약을 의미하는 변화입니다.

우리 학회는 지난 4반세기 동안 매 2년마다 이루어진 새로운 집행진의 교체를 통하여 시대적 변화에 적응하고 젊은 두뇌들을 가르치고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우리나라의 신경과학을 책임지고 대표하는 학술단체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흐름의 한 부분을 성실하게 채우고 별 무리 없이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히 본인의 영광이고 자랑이지만, 이는 지난 2년 동안 흉허물 없이 함께 하였던 회장님들과 모든 이사님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에 기인함에 틀림이 없습니다.

돌이켜 생각하면, 이사장직을 수행하면서 함께 했던 이사님들의 능력을 의심했던 적은 한번도 없었지만, 나 스스로의 능력에 반문하고 의심하였던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의견을 생략하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서 무언의 도움을 청하면, 역시 그때마다 우리들의 역할과 능력은 저절로 발휘되곤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 학회의 발전은 개인이 아닌 집단의 힘과 조화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체험하였던 2년이었습니다.

지난 임기 중에는 행사도 많았고 정말 여러 번의 중요하고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었고 마무리가 된 것은 정말로 행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지난 세월 동안 면면히 내려져 오는 모든 회원들의 학회에 대한 사랑과 충성심에 기인한다는 것을 모를 리 없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더욱 승화시키는 것은 바로 "학회는 회원들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집행진의 확고한 신념이라는 것을 임기를 끝내면서 새롭게 느끼게 됩니다.

존경하는 대한신경과학회 회원 여러분!

지난 2년 동안의 영광된 역할을 마치고 이제 평회원의 자격으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그동안 부족한 저를 돌보느라 애쓰셨던 모든 이사님들과 우리 학회의 소중한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그동안 이루었던 아름다운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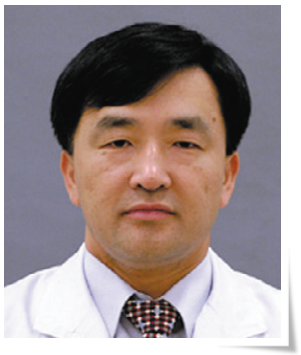
회원 여러분의 건승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
이 병 인

#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JCN) 의 SCI-E 등재 소식을 접하며

**JCN의 SCI-E 등재 소식을 접하니 초창기 편집위원장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영욕이 점철된 짧은 대한민국의 역사처럼, JCN의 역사도 짧지만 결코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그 역사를 잠시 회고해 보고자 한다.**

글 김 종 성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2004년 3월, 필자는 대한신경과학회의 편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당시 편집위원장은 김주한 선생님. 이사장은 정경천 선생님이었다. 국제화 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신경과학회에도 영문잡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처음에 누가 강력하게 이 의견을 제기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어쨌든 이것은 필자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고, 김주한 선생님은 편집위원을 국문, 영문으로 이원화하고, 나에게 영문잡지의 편집위원장을 맡아 총 지휘하라고 말씀하셨다.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SCI 수준의 잡지였다. SCI 잡지에서 편집위원의 영문 논문 실적이 중요하며 또한 subspecialty의 안배도 중요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영문 편집위원으로 나덕렬, 김만호, 김승현, 김재문, 방오영, 이원용, 이재홍, 전범석, 허지회 교수에게 부탁했고 이 분들이 흔쾌하게 수락해 초창기 편집위원진이 구성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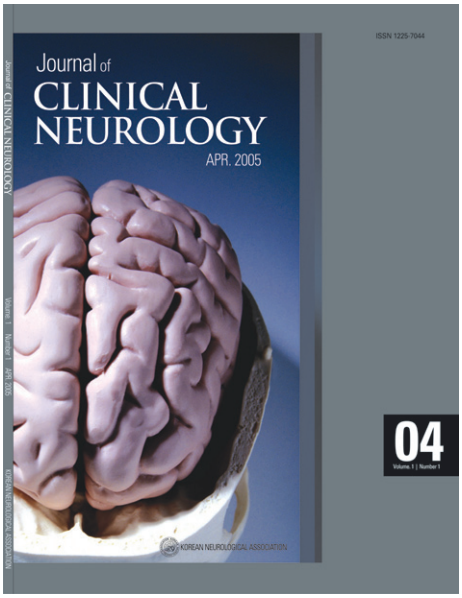
이제는 해외 편집인들을 모셔와야 한다. 이 분들에게는 적어도 초창기에 논문이나 종설을 부탁해야 하므로 필자나 다른 편집위원들과 안면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구성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 편집위원으로 Caplan, Kanazawa, Wong, 오신중, 강운중, Luders, Spencer, Mizuno 등이 추천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앞의 6명이 초창기 위원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이후 미네소타의 Wijdick, 플로리다의 Heilman이 추가로 합류하였다. 이 분들에게 초청 종설과 논문을 부탁했는데, 논문을 보내 주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초기 JCN종설의 대부분을 맡아 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

국내 편집위원을 중심으로 영문 편집위원회를 따로 열기 시작했고 여기서 창간호 발간 시기를 2005년 4월 30일로 하고, 일 년에 2회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학술지 명칭에 관해 여러 의견이 나왔다. 진정한 SCI 잡지를 목표로 한다면 과감하게 Korean이란 글자를 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를 제일 강하게 주장했던 사람은 아마도 본인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따라서 Clinical Neuroscience, International J of Neurology, Asian Neurology,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등 여러 의견이 나왔으며, 이 중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JCN)로 잡지의 이름을 최종 결정하였다. 출판사에서 여러 표지 디자인을 가지고 온 결과 현재의 JCN 표지가 결정되었다. Guideline for authors와 논문 assess from도 본인이 만든 것에 편집위원들이 수정을 가하여 완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영문잡지인 만큼 영어 교정이 문제였다. 물론 편집위원들이 돕기는 하겠지만 한국인으로서 한계가 있고, 마지막 원고 교정은 native speaker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뉴질랜드의 Paul Kolston이란 사람이 진행하는 English Science Editing 회사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여 여기에 맡겨보기로 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회사의 영어 교정은 수준급이어서(교정된 영어를 세심히 보신 저자 분들은 모두 동의할 것이다) 회원들에 대한 영어 교육과 JCN의 수

준 높은 영어 구사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그러나 초창기부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논문 모집 전략이었다. 누구나 논문을 쓰기는 힘들다. 게다가 영어로 쓰는 것은 더욱 고통스럽다. 특별한 이득이 없다면 누가 신설 잡지이며 아직 SCI가 아닌 JCN에 논문을 낼 것인가? 논문 유인책으로 여러 의견이 제시되었다. 우선 전문의시험 요건 중 영어논문에 제1저자로 싣는 경우 그 1편만으로도 인정해 주자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논문심사비를 면제해 주고 채택된 경우 1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전공의 우수논문상 수여 시 영어논문에 중점을 두기로 했고, 공개할 필요가 있고 홍보가치가 있는 논문은 학회 차원에서 매스컴에 내용을 알려주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심사위원에 대한 배려도 문제였다. 아무리 전문 영어교정자가 있다고 해도 그들이 논문 내용은 잘 모른다. 따라서 어느 정도는 일목요연한 뜻이 전달되도록 심사위원이 영어를 교정해 줘야 하므로 심사가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영문까지 교정하는 경우 국내 신경과회원 심사비는 7만원, 비신경과회원 심사비는 10만원, 해외심사자는 100불로 심사비를 대폭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의욕적으로 시작을 했으나 JCN은 창간호부터 여러 문제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신경과학회 회원들에게 수차례 안내문을 보냈지만 창간호까지 시간이 촉박해 충분한 원고를 확보할 수가 없었다. 역시 영문 논문 작성이 힘든 것인지, 신경과 회원의 원고가 생각보다 적게 들어왔다. 어쩔 수 없이 필자 자신이 논문을 내고 편집위원들에게 부탁하는 수밖에 없었다. 우선 종설을 써야 하는데, Caplan에게 부탁해 봤으나 시간이 촉박해서 어렵다고 했다. 할 수 없이 필자가 한편을 급히 쓰고(intracranial atherosclerosis), 김만호 교수가 한편(Migraine genetics)을 써 주어 해결되었다. 대신 논문은 Caplan이 큰 도움을 주었다. 그는 자신이 submit 하려고 준비해 둔 논문 두 편이 있으니 그것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보내 준 원고는 New England Medical Center Registry를 이용한 posterior circulation stroke을 총 정리한 아주 수준 높은 연구였다(SCI 논문에




▲대한신경학회 영문학회지 창간호

제출했다면 아주 높은 impact factor를 갖는 잡지에 실렸을 것이다). 결국 종설을 비롯 모든 원고는 21편 접수되었는데 이 편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Caplan에게 부탁하여 2편을 받고, 본인이 3편, 편집위원인 방오영 교수가 2편, 김만호 교수와 이재홍 교수가 각각 1편 등, 거의 편집위원이 꾸려낸 논문집이라 할 수 있었다. 게다가 전문가의 영문 교정을 요청할 시간이 없어 심사위원들이 수고를 하였고, 종국에는 필자가 모든 영어를 최종 교정할 수밖에 없었다. 아무튼 이렇게 하여 2005년 4월 30일 JCN의 첫 호가 탄생하였다.

그 후 JCN은 그럭저럭 꾸려갔지만 역시 전국적인 논문집이라기 보다는 편집위원들의 노력에 의해 꾸려간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에서는 JCN에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2006년부터 1년에 4편으로 증간하기로 했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는 끊이지 않았다. 우선 4편으로 증간된 만큼 논문이 더 많이 접수되어야 하는데 별로 그런 징조가 보이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는 그 당시 SCI 논문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부각되어 저자들이 힘들게 쓴 논문을 당장 SCI 잡지에 내고 싶어했기 때문이다. 대학교에 따라 SCI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가 강화되어, 심지어 어느 학교에서는 높은

impact factor의 잡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 1000만원이 넘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소문이 들렸다. 게다가 SCI 논문은 교수 승진의 요건으로서 점점 더 중요한 사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과기처나 복지부에 연구비를 신청하는 경우 SCI 논문 업적이 많을수록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다. 이런 이익을 마다하고, 피와 땀을 흘리며 작성한 영문논문을 JCN에 낼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문제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편집위원회에서는 인센티브를 더욱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논문 당 인센티브를 원저, 종설 30만원, 증례보고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학회에서 1000만원을 조성해서 1년 동안 많은 원고를 싣는 저자 순으로 3명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런 처방에도 불구하고 논문 부족 증세는 별로 해소되지 않았다. 편집위원장으로서 어려웠던 점은, 내용이나 영어구사에서 SCI 저널 수준이 되지 못하는 수준이 낮은 논문은 자주 제출되는데 반해, SCI 급 잡지에 논문을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회원은 기존 SCI 잡지에 계속 논문을 내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 분들은 또한(본인은 논문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JCN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로 다른 논문에 대해 신랄한 비판의 칼날을 휘둘러 마구 탈락시키는 특징이 있다. 이러니 편집위원장으로서는 매 호마다 쓸만한 논문을 찾아 게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수준이 낮은 논문을 붙들고 직접 고쳐가며 애를 쓸 수밖에는 없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급히 JCN을 medline에 등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도서관을 통해 신청과정을 알아 본 후 2007년 1월 on-line으로 medline 등재 신청을 했다. 신청 서류에는 JCN 의 spectrum이 무엇인가? 왜 이 잡지가 medline 등재가 되어야 하는가? 등 몇 가지 항목에 대해 편집위원장이 적어내는 컬럼이 있다. 필자는 "이미 임상 신경학 학술지는 세상에 많지만 아시아 지역 임상신경의 특성은 문헌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거대한 아시아 인구와 점차 증대하는 아시아의 중요성에 비추어 JCN 같은 잡지가 medline에 등재되어 그 정보를 세계인이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로 적어서 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리고 2006년에 발행된 4편의 JCN을 그 쪽으로 보내 review할 수 있도록 했고, 그 후 아직까지 지속적으로 JCN을 medline에 보내고 있다.

하지만 2007년 6월 필자는 아쉽게도 JCN이 medline 등재에 실패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Committee의 review summary를 읽어보니 JCN에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안된 것은 아니고 다만 priority가 낮아 그렇게 됐으며 현재 medline 등재의 경쟁률은 4:1에서 5:1 정도 된다고 적혀있었다. 전체적으로 rating은 0-5 scale 중 3 점을 맞았는데 편집위원의 역량, 논문의 질 등에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다만 educator, administrator, student, policy maker에 대한 영향력이 낮은 점수(각 2점)를 맞았다. 저자가 전부 Korean이란 점도 지적 받았는데 반대로 local, indigenous disease에 대한 contribution이 적다는 점도 지적 받았다. Medline 등재 실패한 학술지가 하나 둘이 아니겠지만 나로서는 실망스런 통보가 아닐 수 없었다. 이제는 JCN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한글잡지와 영문잡지를 하나로 통일 시키고 위에 지적 받은 사항을 보강하여 다음 번 기회를 노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 두 학술지를 통합할 때 JCN이란 이름을 사용하기는 곤란했다. 학술진흥재단에 문의한 결과 대한신경과학회지(학진등재) + JCN(학진비등재) = 학진등재 후보 자격을 주므로 통합잡지의 격이 오히려 낮아진다. 재단에서는 학진등재 + 등재후보 = 학진등재로 간주하므로 JCN을 등재후보로 만들고 통합하기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발간된 지 3년이 지나야 등재 후보 자격이 되는 규정이 있으므로 2008년 3월 호가 나와야 JCN이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이것이 결정되는 데 적어도 6개월이 걸리므로 시간 소모가 많다고 생각하였다. 게다가 결국 통합할 같은 학회지 두 개를 따로따로 학진등재 시키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편집위원회의에서 JCN을 폐간하고 대한신경과학회지를 영문이름으로 바꾸면 그대로 학진등재 상태가 유지되므로 이런 식으로 두 잡지를 통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

런 안을 이사회에 개진한 결과 이사회에서는 대한신경과학회지의 영문이름인 Journal of Korean Neurology Association을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JCN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던, 그리고 수준 높은 SCI 잡지가 되기 위해서는 Korea란 글자가 제목에 없는 것이 좋다고 평소 생각했던 필자로서는 매우 아쉬운 결정이었지만 학회지의 미래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 길이 최선인 것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이런 의견의 와중에 어느덧 이사진이 바뀌었고 차기 이사장은 (이광우 선생님) 통합이 지나치게 빠르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우선 국문과 영문잡지를 당분간 존속시키고 서서히 통합을 할 것을 권고하셨다. 결국 학술지 통합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자는 새로 편집위원장으로 선출된 허지회 교수에게 모든 일을 맡길 수밖에 없었다. 국문과 영문 두 잡지를 함께 꾸려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허 교수에게 힘든 짐을 맡기는 것 같아 마음이 몹시 무거웠다. 허 교수도 이를 눈치챘는지 어두운 표정이었다. 그런데 바로 이순간, 톰슨사로부터 낭보가 들려왔다. 2008년 3월 14일 JCN이 SCIE에 등재되었다는 것이다!

실은 필자도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JCN이 SCIE에 등재되었는지 잘 알지 못한다. 대한방사선학회지도 이처럼 편집위원장도 모르는 사이에 등재되었다고 하는데, 아마도 medline 쪽으로 계속 보낸 JCN을 SCIE에서 review하면서 등재 자격을 준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튼 얼마 후 사라질 운명이었던 JCN은 이로써 멋지게 부활했고, 우리나라의 몇 안 되는 SCIE 잡지로 다시 새로운 각광을 받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JCN이 SCIE로 등재된 데에는 많은 분들의 수고와 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면을 빌어, 우선 그동안 고생 많으셨던 편집위원님들께 감사 드린다. 특히 많은 인센티브와 다른 이익을 마다하고 JCN에 훌륭한 논문을 제출해 주셨던 편집위원님들 그리고 학회 회원님들께 감사 드린다. JCN이 SCIE가 된 이제서야 필자는 그 분들에게 보답해 드린 것 같아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고 혜안을 가지고 필자에게 일을 맡기신 정경천, 이병인 전 이사장님과 김주한 전 편집위원장님에게 감사 드리며, 또한 필자가 JCN에 매달리는 동안 묵묵히 수준 높은 대한신경과학회지를 유지해 주신 전 부위원장 박건우 교수께도 감사 드린다. 필자는 허지회 교수를 비롯한 새 편집위원진의 부담을 덜어드린 것 같아 기쁘고 대한의학회에 대한신경과학회의 위상을 높일 수 있어 즐겁다. 하지만 지금 내가 가장 기쁜 이유는 JCN을 통해 우리 대한신경과학회 회원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는 처음부터 대한신경과학 회원들의 논문 내용이 세계에 알려져야 할 정도로 수준이 높으며, 따라서 논문을 반드시 국제어인 영문으로 써야 함을 역설해 왔었다. 2008년 3월 14일은 대한민국 신경과회원의 높은 역량이 확인된 순간이었던 것이다.

어쩌면 JCN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SCIE 등재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국문과 영문잡지를(이제는 JCN으로) 신속하게 통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JCN은 이제는 "국제"잡지이며 이에 걸맞은 수준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우리 학회 역시 이를 계기로 좀더 세계화, 국제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멀지 않은 장래에 JCN이 다른 많은 나라의 학자들이 논문을 게재하려 애를 쓰는 진정한 국제지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만 소감을 줄인다.

# 춘계 **평의원회** 소식

▶ **일시** : 2008년 4월 25일(금) 오후 4시
▶ **장소** : 롯데호텔 36층 회의실

**1. 총무 :**
①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신경과 문항 수 증가를 요청하여 관철함
② 중환자의학 세부전문의 제도에 신경과 전문의도 참여하기로 확정함

**2. 향후 학술대회 일정**
- 2008년 10월 9일 ~ 12일 부산 BEXCO
- 2009년 10월 29일 ~ 11월 1일 서울 쉐라톤 워커힐
- 2010년 10년 21일 ~ 24일 제주 ICC

**3. 편집 :**
① 영문 학회지 SCIE 등재(2008년 3년 14일)
② 국문과 영문학회지 공존
③ JCN : 원저 위주로 on-line 심사계획, 인용지수 강조

**4. 교과서 :**
① 교과서 총 판매 부수 : 1,222부(2008년 5월 20일 현재)
② 교과서 수정을 위한 준비 시작

**5. 노인의료위원회 :**
① 보건의료전문가 자문을 활용한 정책보고서
② 추계학술대회 시 정부요인 초청 간담회 예정
③ "(가칭) 노인신경학회" 창립 준비

**6. 임원 선출**
① 차기회장 선출 : 영남대 하정상 교수
② 감사 선출 (1명) : 대구 가톨릭대 이동국 교수

## 대한신경과학회 회칙 개정 (개정 전과 후, 2008년 4월 25일)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 2 조 (목적) | 제 2 조 (목적) |
| 본 학회는 신경학의 향상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학회는 신경학의 향상 발전과 회원의 **권익옹호,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 4 조 (회원의 구성) | 제 4 조 (회원의 구성) |
| 본 학회의 회원 구성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br>나. 준회원 : 신경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거나 동과정을 필한 자로 한다. | 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br>나. 준회원 : 신경과 전공의 수련과정에 있거나 **동** 과정을 필한 자로 한다. |
| 제 6 조 (권리와 의무) | 제 6 조 (권리와 의무) |
|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선거권과 소정의 의결권이 있으며, 피선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 학술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 1. 본 학회의 정회원은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 학술지를 무상으로 받을 권리가 있다. |
| 제 7 조 (자격정지) | 제 7 조 (자격정지) |
| 본 학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등록 및 년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재입회를 원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 및 미납 년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본 학회 회원으로서 정당한 이유없이 3년간 등록**비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재입회를 원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비**와** 미납**한** 연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제 8 조 (사업내용) | 제 8 조 (사업내용) |
| 1. 신경학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집담회, 강연회, 학술지발간, 도서의 간행 및 계몽사업 | 1. 신경학의 연구발전을 위한 학술대회, 강연회, 학술지발간, 도서의 간행, 계몽사업 |

| 개정 전 | 개정 후 |
|---|---|
| **재 4 장 임원의 임기 및 임무** | **재 4 장 임원의 임기와 임무** |
| **제 9 조 (임 원)** | **제 9 조 (임 원)** |
| 1. 회 장 1 명<br>2. 이 사 장 1 명<br>3. 부이사장 1 명<br>4. 이 사 6명 이상 15명 이내<br>신경과 개원의 협의회 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br>5. 감 사 2 명<br>6. 간 사 1 명<br>7. 평 의 원 정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 | 1. 회장 1명<br>2. 부회장 2명<br>3. 이사장 1명<br>4. 부이사장 1명<br>5. 이사 12명 이상 20명 이내<br>6. 감사 2명<br>7. 간사 1명<br>8. 평의원 정회원 중 평의원회에서 선출 |
| **제 10 조 (임원의 임무)** | **제 10 조 (임원의 임무)** |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br>2. 이사장은 본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유고시에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br>3.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는 그 업무를 대행한다.<br>4.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다.<br>5.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이 된다.<br>2. 선출직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하며 차기회장이 된다. 당연직 부회장은 신경과개원의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회원으로 한다.<br>3. 이사장은 본 학회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br>4.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 시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br>5.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소정의 업무를 담당한다.<br>6.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와 재정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
| **제 11 조 (임원의 임기)** | **제 11 조 (임원의 임기)** |
|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br>2.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br>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br>4. 회장 및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1.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br>2.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br>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br>4. 회장과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 **제 12 조 (임원의 선거)** | **제 12 조 (임원의 선거)** |
| 차기회장, 차기이사장은 본 학회의 회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취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부회장, 차기이사장은 취임 1년 전에 평의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 **제 13 조 (기타 임원의 선거)** | **제 13 조 (기타 임원의 선거)** |
| 2. 평의원의 자격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현 이사장 및 이사진, 역대이사장, 역대 회장, 현 지부학회장, 수련병원과장, 개원의협의회회장 및 개원의협의회(봉직의 포함)에서 추천하는 대표로 한다. | 2. 평의원의 자격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자로서 현 회장, 부회장, 이사장 및 이사진, 역대 이사장, 역대 회장, 현 지부학회장, 수련병원과장, 개원의협의회회장 및 개원의협의회(봉직의 포함)에서 추천하는 대표로 한다. |
| **제 14 조 (총회)** | **제 14 조 (총회)** |
| 1. 총회는 년 1회 정기 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br>2. 총회는 재적 회원의 과반수(위임장 포함)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1. 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중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 또는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br>2.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위임장 포함)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재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 개정 전 | 개정 후 |
|---|---|
| 제 15 조 (평의원회) | 제 15 조 (평의원회) |
| 1. 평의원회는 정회원 가운데 평의원회에서 선출된 회원으로 구성하며 년 1회이상 정기 평의원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1. 평의원회는 정회원 가운데 평의원회에서 선출한 회원으로 구성하고 연 1회 이상 정기 평의원회의를 개최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의장이 된다. |
| 제 16 조 (평의원회의 의결 사항) | 제 16 조 (평의원회의 의결 사항) |
| 1. 임원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br>2.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br>3. 회칙개정 및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br>4.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br>5.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br>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br>7. 기타 학회 회무에 관한 사항 | 1. 임원선출과 탄핵에 관한 사항<br>2.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br>3. 회칙개정과 예산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br>4.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의 승인에 관한 사항<br>5. 제 규정의 인준에 관한 사항<br>6. 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br>7. 기타 학회 회무에 관한 사항 |
| 제 17 조 (이사회) | 제 17 조 (이사회) |
| 1. 이사회는 년 4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br>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br>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1. 이사회는 연 4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의를 개최해야 하며 이사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br>2.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재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br>3.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 제 18 조 (이사회의 업무) | 제 18 조 (이사회의 업무) |
| 1. 총무이사 : 서무, 대외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보관 및 본 학회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br>2. 학술이사 : 학술회, 보수교육 및 집담회의 개최에 관한 업무<br>3. 수련이사 : 수련계획 및 감독, 보수교육, 수련병원 자격심사<br>4. 고시이사 : 전문의 고시에 관한 업무<br>5. 편집이사 : 본 학회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br>6. 재무이사 : 일반 회계 업무<br>7. 보험이사 : 의료수가, 보험업무에 관한 사항<br>8. 법제이사 : 법률적 자문에 관한 업무<br>9. 홍보이사 :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br>10. 정보이사 : 정보에 관한 모든 업무<br>11. 기획이사 : 학회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업무<br>12. 무임소 이사 : 기타 제반 업무에 대한 사항<br>13. 간사 :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무이사에게 제출하며 의결권은 없다.<br>14. 감사 및 차기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의결권이 있다. | 1. 총무이사 : 서무, 대외업무연락,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본 학회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br>2. 학술이사 : 학술대회, 보수교육 개최에 관한 업무<br>3. 수련이사 : 수련계획 및 감독, 보수교육, 수련병원 자격심사<br>4. 고시이사 : 전문의 고시에 관한 업무<br>5. 편집이사 : 본 학회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br>6. 재무이사 : 일반 회계 업무<br>7. 보험이사 : 의료수가, 보험업무에 관한 사항<br>8. 법제이사 : 법률적 자문에 관한 업무<br>9. 홍보이사 :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br>10. 정보이사 : 정보에 관한 모든 업무<br>11. 기획이사 : 학회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업무<br>12. 국제이사 : 국제 업무에 관한 사항<br>13. 무임소이사 : 기타 제반 업무에 대한 사항<br>14. 간사 : 이사회, 평의원회 및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무이사에게 제출하며 의결권은 없다.<br>15. 감사와 차기이사장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 참석하며 의결권이 있다. |
| 제 19 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 제 19 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
| 5. 사무직제 및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5. 사무직제와 제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

| 개정 전 | 개정 후 |
|---|---|
| 6.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br>7. 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br>8. 총회 및 평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 6.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br>7. 지부 승인에 관한 사항<br>8. 총회와 평의원회에 부의할 사항 |
| 제 20 조 (위원회) | 제 20 조 (위원회) |
| 이사회 각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시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이사회 각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일반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위원장은 이사장의 추천에 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 제 22 조 (재정) | 제 22 조 (재정) |
|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년회비, 찬조금 및 보조금으로 하며 년회비와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본 학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보조금으로 하며 연회비와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
| 제 23 조 (회칙개정) | 제 23 조 (회칙개정) |
| 본 학회의 회칙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평의원회에서 재석 평의원 3분의 20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 본 학회의 회칙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평의원회에서 재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 또는 수정하며 총회에 보고한다. |
| 제 24 조 (준칙) | 제 24 조 (준칙) |
|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 1.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br>14. 본 회칙은 2008년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 |

# 각 위원회별 활동

## ● 고시위원회

1. 2008년 회기 고시위원 명단과 임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시위원은 매년 1/3씩 교체합니다.
   - 김원주, 박건우, 정진상 : 2007년 11월 – 2010년 10월
   - 김요식, 오건세, 이재홍 : 2006년 11월 – 2009년 10월
   - 윤병우(고시위원장), 서대원, 이동국 : 2005년 11월 – 2008년 10월
   - 간사 : 성정준

2. 2008년도 제 51회 전문의자격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차시험
   - 일시 : 2008년 1월 10일(목) • 장소 : 유한대학
   - 응시인원 : 75명 • 합격률 : 74명/75명(98.7%)

   (2) 이차시험
   - 일시 : 2008년 1월 21일(월)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3) 삼차 구술 및 CPX 시험
   - 일시 : 2008년 1월 22일(화) • 장소 : 섬머셋팰리스
   - 2차, 3차 합격률 : 69명/74명(93.2%)

   3) 일차, 이차, 삼차 통합 합격률 : 69명/75명(92%)

3. 대한신경과학회 고시위원원회에서 고시워크숍(시험문항 개발 및 관리)을 개최합니다.
   - 대상 : 수련병원 조교수 이상
   - 일시 : 2008년 6월 5일(목) 오후 2:30 ~ 6:30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의학연구소 1층 대강당
   - 일정

| 일 시 | 내 용 |
|---|---|
| 2:30 ~ 2:40 | 인사말씀<br>대한신경과학회 이사장 |
| 2:40 ~ 3:10 | 2008년 신경과 고시 결과<br>대한신경과학회 고시위원장 |
| 3:10 ~ 3:30 | 교육평가의 개념과 출제계획표 작성<br>권오정(의학회 고시위원) |
| 3:30 ~ 3:50 | 문항개발의 기본원칙<br>유경하(의학회 고시위원 |
| 3:50 ~ 4:10 | 문항분석<br>정익수(의학회 고시위원) |
| 4:10 ~ 4:40 | R형 문항개발<br>이병두(의학회 고시위원) |
| 4:40 ~ 4:50 | Coffee break |
| 4:50 ~ 5:20 | 조별 문항비평 및 수정(조별 토의) |
| 5:20 ~ 6:00 | 조별 발표 및 종합토의<br>이춘용(의학회 고시이사) |
| 6:00 ~ 6:30 | 종합토의(신경과학회 고시 발전방안)<br>대한신경과학회 고시위원장 |
| 6:30 ~ | 저녁 식사 |

## ● 노인의료위원회

1. 정책보고서 발간 계획
   노인의료에서 신경과의 위상과 역할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 활동에 기초 자료가 될 수 있는 정책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2. 작업치료와 낮병동 처방을 위한 방안 마련
   현재 작업치료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만 처방할 수 있고 낮병동(주간보호센터) 역시 재활의학과와 정신과만 운영할 수 있어 이러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신경과 환자들에게는 처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작업치료와 낮병동 처방권 획득을 위해 정부 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설명, 작업치료와 낮병동 활용 시 얻어지는 환자의 이득에 대한 이론적인 근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3. 노인신경과학회 창립 계획
   노인질환과 관계 없는 타과 의사들까지도 노인관련 학회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노인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신경과 의사들이 주축이 된 노인신경학회 창립을 위해 준비 작업 중입니다.

4. 2008년 노인의료간담회 개최
   2008년 대한신경과학회 기간 중에 정부와 심평원, 국회의원 등의 의료 관련 담당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 계획은 대한신경과학회 모든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속에서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립니다.**

## ● 보험위원회

1. 업무 내용 및 위원 위촉
   - 242 Series Inj. Monopolar Needle Electrode, Perfusion CT & SPECT 촬영 시 사용된 졸라딘주, 아리셉트정의 허가 변경과 관련하여 학회 의견을 공문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였습니다.
   - 외래진찰료 행위정의 관련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Multiple Sclerosis에 사용한 베타페론 관련 자문위원: 김광국, 김호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뇌경색 등 뇌혈관질환 관련 자문위원: 송영목, 이경복, 이준홍, 황성희
   - 대한의사협회 – 세계보건기구 국제질병분류 개정작업 참여위원: 이준홍

2 . 보험위원회 1차 워크숍
- 일시 : 2008년 3월 25일(화) 오후 2시
- 장소 : 서초동 명인제약 빌딩
- 일정

| 일 시 | 내 용 |
|---|---|
| 14:00 ~ 14:10 | 인사말 |
| 14:10 ~ 14:30 | 우리나라와 미국 상대가치 차이점<br>김영인 교수(가톨릭의대) |
| 14:30 ~ 15:00 | 신상대가치 설명회<br>홍승봉 교수(성균관의대) |
| 15:00 ~ 15:10 | 질의 응답 |
| 15:10 ~ 15:30 | Coffee Break |
| 15:30 ~ 15:50 | 신경과 의료행위 심사<br>이준홍 과장(국민보험공단일산병원) |
| 15:50 ~ 16:10 | 개원의 입장에서 본 신경과 수가 및 부적절한 삭감 사례<br>〈2차 워크숍에서 검토〉 |
| 16:10 ~ 16:20 | 향후 신경과 보험위원회 운영에 대한 논의<br>보험이사 |
| 16:20 ~ 16:40 | 질의 응답 |

3. 대한신경과학회 상대가치위원회 향후 업무 및 방향
- 회의 : 정기적인 월례회의 진행(현재 3차까지)
- 내용 : 향후 업무 방향은 현재 신경과의 의사업무량을 파악한 후 패널위원(워크숍을 통해 진행업무 study)께 설문하여 신경과의 적정한 의사업무량으로 자료를 정리할 계획입니다.

4 . 회원 알림

보험업무와 관련해서 회원들께 공지할 내용은 대한신경과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회공문공지에 있습니다. 많은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수련위원회

1. 2008년 신입전공의 입문교육 실시

2008년 2월 22일부터 양일간 대전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2007년도 신입전공의 96명을 대상으로 입문교육 실시함.

2. 수련병원 과장회의
- 일시 : 2007년 4월 25일(금)
- 시간 : 오후 6:30 ~ 8:00
- 장소 : 소공동 롯데호텔
- 안건 : 2008년도 수련실태조사 관련 사항 및 전공의 수련 일정과 교육내용

3. 2007년도 전공의 인서비스시험
- 일시 : 2007년 6월 7일(토)
- 시간 : 09:00 ~ 11:00
- 장소 : 고려대, 단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남대

4. 기타 공지시항

수련실태 조사서 작성시 논문에 표기된 지도 전문의의 소속 기관과 실태서 작성 시에 소속 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2008년 9월 첫째 월요일을 기준으로 소속 기관을 정하여 논문 점수를 계산함.

## 편집위원회

1. 영문학회지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의 SCI-E 등재

우리 학회의 영문학회지인 JCN이 3월14일자로 SCI-E에 등재되었습니다. 대한신경과학회의 학문적 발전, 회원들의 우수한 원고 투고, 역대 임원진 및 전임 편집위원장님의 애정 어린 수고 덕으로 생각합니다. 고대하던 SCI-E에 등재됨에 따라 JCN은 이제 더욱 영향력이 큰 세계적인 잡지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더욱 질 높은 종설과 원저를 우선 게재하려고 합니다. 훌륭한 원고를 많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SCIE 등재일지

| | |
|---|---|
| 2004년 3월 | 편집위원 이원화 국문, 영문 편집위원회 구성<br>김종성 교수 초대 편집위원장 취임<br>외국인 편집위원 구성 |
| 2005년 4월 | JCN 창간호 발간 (1권 1, 2호) |
| 2006년 | JCN 2권 1-4호 발간 – 4호로 증간 |
| 2007년 | JCN 3권 1-4호 발간 |
| 2007년 | 1월 Medline 등재 신청 |
| 2007년 | 6월 Medline 등재 실패 |
| 2008년 | 3월 1일 허지회 교수 제 2 대 편집위원장 취임 |
| 2008년 | 3월 14일 SCIE 등재 – JCN 4권 1호 발행 |

2. JCN에 실린 논문의 인용 부탁

JCN이 영향력이 큰 잡지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논문에 인용이 많이 되어야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논문을 작성하실 때 최근 2년 사이에 JCN에 게재된 논문 중 인용할 만한 논문이 있는지 한 번만 검토해 주시고 가능하면 한 편 이상 인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국문학회지의 방향

대한신경과학회지는 국문으로 발간되는 국내 전문 학술잡지 중 가장 우수한 잡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국문학회지는 예전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발간하겠습니다. 계속적인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4. JCN의 새로운 모습

영문학회지는 후반기에 새로운 출판사를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선 보일 예정이며, 국문학회지처럼 on-line을 통해 투고와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5. Table of Content (TOC) Alert system

국문, 영문학회지 모두 TOC (table of content) alert system이 적용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학회지를 발간하자마자 회원님들께 이메일로 해당호의 목차가 전해질 것이며, 바로 원문으로 접속하실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6. 출판윤리 엄수

최근 출판윤리 문제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거나 상당한 정도로 유사한 내용을 두 곳 이상의 잡지나 출판물 등에 게재하거나 동시에 투고하여서는 안됩니다. 특히 국문잡지에 게재한 논문을 외국의 다른 잡지에 게재하면 이중게재에 해당되어 출판윤리를 위반하게 되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출판윤리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 ● 학술위원회

1. 2008년 학술대회 일정 안내

- 일시 : 2008년 10월 9(목) – 10월 12일(일)
- 장소 : 부산 BEXCO
- 변경사항 : 구연 및 포스터 초록마감 일자가 2-3개월 빨라졌습니다.
- 초록 제출 마감일 : 2007년 7월 31일(목) 자정까지 학회 홈페이지에서 마감.

2. 향설 서석조 박사 기념 젊은 연구자상 안내(2008)

- 제정 배경 : 대한신경과학회의 설립과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향설 서석조 박사의 기념사업회에서 대한신경과학회에 연 300만원의 학술지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신경과학회는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 "젊은 연구자상"을 제정하였습니다.
- 자격 : 대한신경과학회 정회원으로서 시상 연도 연말에 만 40세에 달하지 않은 자(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제출 : 2006년 7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 2년간의 신청자가 저자로 포함된 모든 SCI 등재 논문의 별책과 논문리스트 – 논문리스트 양식(excel 표)은 학회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08년 7월 31일(목)까지
- 제 출 처 : 대한신경과학회 우) 110-741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111호
- 심사기준 : 신청자가 저자로 포함된 모든 SCI 등재 논문의 impact factor(가장 최신 JCR version)를 다음 방법으로 계산하여 합산하고, 가장 큰 1인을 선정합니다. 심사 신청 종료일까지 Acceptance letter가 있는 논문도 포함합니다.
  1) 제1저자, 책임저자 : impact factor 100%
  2) 공동저자 : impact factor/저자 수
  3) 제1저자가 1인 이상인 경우: impact factor/제1저자 수
  4) 원저 100%, 증례와 단신보고 50%
  5) SCI 논문 작성 시 대한신경과학회지를 인용한 경우는 30% 추가
- 시 상 : 2008년 학술대회 기간 중에 시상

3. 2009년 학술대회

- 일시 : 2009년 10월 29일(목) – 11월 1일(일)
- 장소 : 쉐라톤 워커힐

## ● 홍보위원회

1. 1차 홍보위원회 모임 및 연관학회 홍보 담당 위원 연석회의

- 장소 : 서울역 T1 중식당
- 일시 : 2008년 4월 17일
- 참석자 : 신경과학회 홍보위원 ; 박수철, 민양기(간사), 손영민, 이은아
- 연관학회 참석자 : 김후원(대한수면연구회), 신동진(간질학회), 이은아(치매학회), 정상욱(뇌졸중학회), 조정훈(개원의 대표)
- 회의 내용 :
  1) 신경과와 연관학회와의 유기적 홍보 전략 모색을 위하여 연관학회 홍보 이사 및 개원의 대표와의 모임을 정례화하고 각 연관학회의 홍보 일정을 종합 정리하여 학회 차원에서 유기적 협조 방법을 모색하기로 의견을 모음.
  2) 기존 신경과 질병에 대한 학회 홍보물의 개정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각 연관학회와 협조 하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임.
  3) 대한한의사협회에서 발표한 뇌졸중 진단 표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일원화특별위원회(조정훈 대표)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2. 공지 사항 :

학회에서 제작하여 배포해 왔던 기존의 신경과 질병에 대한 홍보물에 대한 보완과 개정을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미비하였거나 개선을 위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회원님은 홍보위원회 간사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겠으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지부 동정

## 강원지부

회 장 배재천 (배재천신경과의원)

###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7년
- 회원수 30명
- 장·단기계획 장기계획은 없으며, 단기적으로는 연 3회의 학술대회 개최와 인적교류를 목표로 하고 있음.
- 간단한 소개 강원도 신경과 친목도모 및 최신 신경과학 경향을 습득하기 위한 모임.

###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대한신경과학회 강원지회 학술 심포지엄
- 주제 Interventional neurology (Steut therapy)
- 일시 2008년 3월
- 장소 설악한화콘도
- 주최 강릉아산병원 신경과

※ 7월 5일 주제 정해지지 않음, 일시 : 2008. 7. 5. (토), 장소 : 휘닉스파크(강원도), 주최 : 원주기독병원 신경과

## 광주전남지부

회 장 손의주 (광주상무병원)

###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2006년
- 회원수 58명
- 장·단기계획 1) 전남 광주지역 회원간 친목도모 (친목행사개최 연 2회) 2) 학술행사를 통한 학문적 교류(일년 4회 계획중)
- 간단한 소개 2006년 3월 25일 창립되었고 창립기념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전남 광주 지역 신경과 회원간의 단합과 서로의 학문 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있음.

###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대한신경과학회 광주전남지회 제7차 학술 심포지엄
- 주제 수면-간질 심포지엄
- 일시 2008년 3월 15일
- 장소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덕재홀
- 주최 대한신경과학회 광주전남지회

※ 학술대회는 1년에 4회 예정입니다. 2008년 6월 29일에 신경병성통증을 주제로 8차 학술회의가 개최 예정입니다.

## 대구경북지부

회 장 임정근 (계명의대)

###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3년 1월
- 회원수 139명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 장·단기계획 지역사회의 신경학 분야 의료를 담당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학회가 된다. 신경학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술집담회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회원간의 교류를 통하여 친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회원의 권익을 지키고 신장시킨다.
- 간단한 소개 대구경북지역의 신경학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연 4회 집담회를 하고 있다.

###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대한신경과학회 대구 경북지회 학술집담회
- 주제 강의와 증례토론
- 일시 분기별 1회

※ 모든 회원들이 집담회에 참석하여 학술토론과 회원간의 교류를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산경남지부

회 장 김 상호 (동아의대)

###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2년도
- 회원수 200여 명
- 장·단기계획 대학병원 위주의 모임에서 봉직의와 개원의가 함께 동참하는 모임으로 운영하고, 기존의 연평균 6회 정도의 신경과 지회 모임(주로 마지막주 화요일)을 없애고, 연 4회 정도의 학술대회 및 집담회를 계획하여 시행할 예정임. 회원간의 상호친목과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지역적인 특성을 살려 학술 및 연구 활동의 저변확대를 도모할 예정

• 간단한 소개 2008년도 신임 이사진 명단–회장 : 동아의대 김상호, 감사 : 인제의대 김응규, 학술이사 : 경상의대 박기종, 총무이사 : 동아의대 박경원, 기획이사 : 봉생병원 임용빈, 홍보이사 : 나상옥 신경과의원 나상옥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대한신경과학회 중부지회
• 주제 강의 및 사례 발표
• 일시 분기별 1회
• 장소 주최에 따라 변경

## 영호남지부

회 장 조기현 (전남의대)
이사장 정대수 (부산의대)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85년
• 회원수 약 400명
• 장 · 단기계획 지속적으로 심포지엄을 1년에 두 번씩 개최하여 중요한 신경학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와 토의를 통한 전공의 교육과 학문적 교류에 힘쓸 것이며,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한 친목회를 유지할 계획이다.
• 간단한 소개 1985년 창립 이래로 매년 4–6회의 정기적인 학술집담회를 가졌는데 임상신경학 분야의 최신 지견에 대한 강의와 증례 토의를 통하여 신경학의 이해를 높이고 전공의 교육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1996년 이후에는 학술집담회를 심포지엄으로 전환하여 1년에 두 번씩 개최하고 있으며 중요한 신경학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강의와 토의를 갖고 있다. 학술집담회를 통한 학술적 교류 외에 회원들의 경조사에 마음을 같이하고 있으며 1년에 1차례, 학술집담회를 마치고 회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을 위한 친목회를 갖고 있다.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2008년 대한신경과 영호남학회 춘계학술대회
• 주제 Recent Update in Neurology
• 일시 2008년 5월 24일, 25일
• 장소 부산 해운대 한화콘도
• 주최 대한신경과 영호남학회

## 중부지부

회 장 오건세 (을지의대)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 회원수
• 장 · 단기계획 충청남북도, 대전지역 신경과 회원의 학문 발전과 친목을 도모한다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대한신경과학회 중부지회
• 주제 강의 및 사례 발표
• 일시 분기별 1회
• 장소 주최에 따라 변경

## 호남지부

회 장 김진호교수 (조선의대)

◎ 지부 현황
• 창립연도 1995년
• 회원수 86명
• 장 · 단기계획 신경과학회 회원의 권익과 친목도모 및 신경과학회의 연구발전,그리고 신경계질환에 대한 지역주민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임.
• 간단한 소개 1995년 12월 14일 창립한 본 지회는 2년의 임기로 회장, 총무, 학술, 감사 의 임원진을 두고 연 4회의 학술집담회를 매년 가져 왔다. 학술집담회는 4개의 의과대학을 번갈아가며 초청강연과 흥미로운 증례토의를 하는 모임으로 되어 있으며 임원임기 2년 중 1회의 학술집담회를 열고 있다.

◎ 학술대회 일정
• 학술대회 명칭 미정

# 알 림 란

## 이일근 선생님

서울브레인신경과 개원
압구정역 4번출구
02-541-8275
www.seoulbrain.co.kr

## 김지수 선생님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신경안과/신경이과 Workshop 개최
- 일시 : 7월 5-6일
- 장소 :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대강당/회의실

## 최광동 선생님

■ 영호남학회 춘계학술대회
- 일시 : 2008년 5월 24일, 25일
- 장소 : 부산 해운대 한화콘도
- 주제 : Recent update in neurology

## 손성일 선생님

■ 2008년 제1회 대한뇌졸중학회 대구 · 경북지회 창립 심포지엄 안내
- 주 제 : Ultrasound in Stroke and Neurology
- 일 시 : 2008년 6월 14일(토) 13시 ~ 18시
- 장 소 : 경북대병원 대강당 (10층)
- 등록안내
  - 사전등록기간 : 2008년 6월 4일(수)까지
  - 사전 등록비 : 전문의 2만원, 전공의, 간호사, 기사 : 1만원
  - 당일 등록비 : 전문의 3만원, 전공의, 간호사, 기사 : 2만원
  - 입 금 계 좌 : 대구은행 081-13-039750 (예금주 / 뇌졸중대경지회)

## 교과서 "신경학" 수정

대한신경과학회 교과서편찬위원회는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 오자, 탈자 등 보완할 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견을 주신 회원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릴 예정입니다.

## 안산시 뇌졸중 치매 사업단

안산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사업협정을 체결하여 원광대학교 안산시립노인전문병원(원장 석승한)내에 안산시 뇌졸중 치매 사업단을 2007년 7월에 발족하였다.
사업단의 목표는 첫째, 뇌졸중 및 치매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둘째, 홍보. 셋째, 뇌졸중과 치매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등록 관리. 넷째, 연구를 통한 보건정책의 기초자료 마련 등이다.
이에 따라 2007년 하반기에 안산시 대부동과 고잔동에서 뇌졸중과 치매에 걸리지 않은 50세 이상 180명을 선정하여 뇌졸중 치매 예방 조기검진을 실시하였다. 2008년에도 조기검진 사업을 확대하고 예방교육과 뇌졸중 치매 예방의 날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 새 병원 개원소식

서울대학교병원운영 시립보라매병원이 500병상 규모의 새 병원을 건립하여 2008년 5월에 개원하였습니다. 기존 병원의 리모델링이 끝나는 2010년에는 1000병상 규모의 병원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2008년 7월 11일(금)에는 Stroke center open symposium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 회원동정 경조사

## [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

| | | | |
|---|---|---|---|
| 김세종 | 전 전남대병원 | 모친상 | 2008년 1월 30일 |
| 김우경 | 한림대강동성심병원 | 부친상 | 2008년 2월 17일 |
| 노재규 | 서울대병원 | 모친상 | 2008년 2월 11일 |
| 류종현 | 류종현신경과 | 부친상 | 2008년 2월 6일 |
| 박영호 | 서울대병원 | 부친상 | 2008년 2월 12일 |
| 선우일남 | 연세대세브란스병원 | 모친상 | 2008년 4월 7일 |
| 이경복 | 순천향대병원 | 부친상 | 2008년 1월 10일 |
| 이성수 | 연세대기독병원 | 부친상 | 2008년 4월 9일 |

## [ 결혼을 축하합니다 ]

| | | | |
|---|---|---|---|
| 김수연 | 분당서울대병원 | 축결혼 | 2008년 5월 25일 |
| 김창헌 | 한양대병원 | 축결혼 | 2008년 2월 23일 |
| 오재욱 | 샘안양병원 | 축결혼 | 2007월 12월 16일 |
| 이석호 | 한양대병원 | 축결혼 | 2008년 3월 8일 |
| 이종윤 | 국립의료원 | 축결혼 | 2007월 9월 15일 |
| 조중양 | 인제대일산백병원 | 축결혼 | 2008년 2월 1일 |
| 민주홍 | 중앙대병원 | 축결혼 | 2008년 5월 26일 |

## [ 개원을 축하합니다 ]

| | | | |
|---|---|---|---|
| 이일근 | 서울브레인신경과 | 축개원 | 2008년 3월 7일 |
| 임건한 | 베스트신경과 | 축개원 | 2008년 3월 8일 |
| 한병인 | 두신경과 의원 | 축개원 | 2008년 4월 15일 |

The 1st Choice for

# Essential Tremor

# 알말® 정 5mg 10mg

(염산 아로티놀올)

- 골격근의 베타 수용체를 차단하여 진전을 억제합니다.[1)]
- 내인성 교감신경자극작용(ISA)이 없습니다.[2)]
- 우수한 항진전효과와 안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3)]
- 장기복용시 적합합니다.[4)]


Reference

1) Supressing effect of arotinolol, an a-and b- blocker, on oxotremorine-induced Tremor in mice. 原 洋一ほか : 應用藥理, 41(1):25, 1991

2) 原 洋一ほか : 日藥理誌, 75 : 707, 1979

3) A multicenter ranomized crossover multiple-dose comparion study of arotinolol And propranolol in essential tremor. Parkinsonism and related disorders 9 (2003) 341-347

4) a long-term administration study of arotinolol hydrochloride in patients with Essential tremor 高橋 昭 ほか: 臨床醫藥, 9(6):1373,1993


CJ Pharma

# The safest & first choice

## Reduction rate of hemorrhagic risk (vs ASA)

TIM Study[1] 33% ⬇
TACIP Study[2] 53% ⬇
TAPIRSS Study[3] 66% ⬇

혈전증 치료제

# Disgren®

**Dual mechanism**
- Total PAF inhibitor (COX 1, ADP, EP, collagen)
- Increase of cAMP

**Additional effect**
- NO increase
- Neuroprotection

## 혈전증 예방 및 치료의 뛰어난 효과!

- $TxA_2$ 억제 및 c-AMP 증가로 우수한 항혈전효과를 나타냅니다.
- NF-kB 억제로 neuroprotection 작용을 나타냅니다.
- NO에 의한 혈관 확장 및 심장보호 효과를 나타냅니다.
- ASA와 비교시 출혈성 합병증이 없어 장기간 복용시 안전합니다.
- 혈액계 부작용, 간독성, 두통 등의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References
1) J.M Cruz-Fernández et al. Eur Heart J 2000;21:457-465 2) Matias-Guiu et al. Stroke. 2003;34:840-848
3) A. Culebras et al. Neurology 2004;62:1073-1080

좋은 치료제, 넘치는 건강
명인제약(주)
www.myunginph.co.kr

sanofi aventis
Because health matters
판매원 / Copromoted by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735번지
Tel. 02-527-5500 Fax. 02-527-5551

플라빅스®정 75밀리그램

전문의약품

■ **원료 약품 및 그 분량** : 1정 중 주성분 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별규) 97.875mg (클로피도그렐로서 75mg) ■ **효능 · 효과** 1)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의 개선 2) 급성관상동맥증후군(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비Q파 심근경색 환자에 있어서, 약물치료 또는 관 상중재시술(PCI)(stent 시술을 하거나 하지 않은 경우 및 관상동맥회로우회술(CABG)을 받았거나 받을 환자를 포함)이 있는 환자에서 죽상동맥경화성 증상(심혈관계 이상으로 인한 사망, 심근경색, 뇌졸중 또는 불응성 허혈)의 개선 ■ **용법 · 용량** 1) 뇌졸중, 심근경색 또는 말초동맥성질환이 있는 환자: 음식물의 섭취와 상관없이 1일 1회 1정 (75mg)을 투여 2) 급성관상동맥증후군 (불안정성 협심증 또는 비Q파 심근경색)이 있는 환자 : 이 약 300mg을 초회 투여하고, 이후에 아스피린75 ~ 325mg과 병용하여1일 1회 1정(75mg)을 음식물의 섭취와 상관없이 유지 용량으로 투여. 고령자 또는 신질환 환자에 대한 용량 조절은 필요하지 않다. ■ **경고** : 1) 이약을 단독 또는 아스피린과 병용 투여시 출혈을 멈추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의 경우보다 오래 소요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알리고, 출혈이상 (출혈부위 또는 지속시간)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사에게 보고하도록 지도한다. 환자는 수술 계획 전 또는 새로운 약물을 복용하기 전에 이 약을 복용하고 있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알려야 한다. 2)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증(TTP) : 이 약 사용 후에 드물게 TTP가 보고되었으며, 때때로 단기간 사용(2주 이내) 후에도 보고되었다. TTP는 즉시 혈장분리반출술(혈장교환법)과 같은 치료를 요하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일 수 있는 중증의 상태로서 혈소판감소증, 미소혈관 용혈성 빈혈, 신경학적 소견, 신부전 및 발열을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 **금기** 1) 이 약 또는 이 약의 구성 성분에 과민증이 있는 환자 2) 투약 당시 소화성궤양 또는 두개내 출혈과 같은 병적인 출혈이 있는 환자 3) 중증의 간 손상 환자 4) 수유부 5) 선천적으로 갈락토오스 불내증, 락타아제 결핍증, 포도당-갈락토오스 흡수장애가 있는 환자 (유당 함유제제에 한함) ■ **신중투여** 1) 위장관 출혈 환자 2) 출혈 경향을 가진 병변(궤양 등)이 있는 환자 및 출혈 위험이 증가한 환자 3) 간기능 손상 환자 4) 신기능 손상 환자 5) 급성 뇌졸중 환자 (7일 이내) ■ **이상반응** : 1)출혈장애 2)혈액학적장애(호중구감소증/무과립구증 등) 3)위장관계증상(예, 복부통, 소화불량, 위장염 또는 변비) 4)발진 및 기타 피부질환 5)기타이상반응 ■ **제조원** 제조의뢰자: Sanofi Pharma Bristol-Mayers Squibb SNC(174 avenue de France, 75013 Paris, France) 제조자: Sanofi Winthrop Indutrie (1 rue de la Vieragr, Ambares et Lagrave, 33565, Carbon Blanc Cedex, France) 소분제조자: (주)한독약품 충북 음성군 대소면 대풍리 37 ※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나 제품 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Plavix Global sales IMS Health-May 2007. 2. Bhatt DL, Topol EJ. Scientific and therapeutic advances in antiplatelet therapy. Nat Rev Drug Discov. 2003; 2: 15-28.

Copromoted by
한국 BMS 제약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 3동 942번지
Tel. 02-3404-1300

Newsletter of

# THE KOREAN NEUROLOGICAL ASSOCIATION

# 대한신경과학회보

NO.77 2008.MAY

발행인 | 이 광 우
편집인 | 박 성 호
발행처 | 대한신경과학회
주 소 | 서울 종로구 인사동 43번지 대일빌딩 11층 11호
전 화 | (02)737-6530 팩 스 | (02)737-6531 이메일 | kna@neuro.or.kr 홈페이지 | www.neuro.or.kr
디자인·인쇄 | 도서출판 씨아이알 (02)2275-8603
발행일 | 2008. 5. 31